



10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3.9%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로는 3.9% 상승하였으며, 전월대비로는 0.2% 하락함.

-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010년 12월 3.5%를 기록한 후 9개월 연속 4%대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10월 3%대로 하락함.
-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3.7% 상승하여 9월 3.9%에 비해 낮아졌으며, 전월대비로는 0.2% 하락함.
-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한 반면, 전월대비로는 0.2% 하락함.
-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4.0%, 전월대비 6.6% 각각 하락함.

〈그림 1〉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%대로 낮아진 것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기후여건 개선으로 배추, 파, 무 등의 채소류 가격이 하락하고 주요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통화료 및 데이터 이용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임.
- 농·축산물의 경우 고춧가루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01.0%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하였고 콩(41.4%), 쌀(17.7%), 돼지고기(12.0%), 갈치(17.5%) 등이 상승한 반면, 배추(-65.4%), 파(-62.3%), 무(-62.5%), 국산쇠고기(-12.4%), 마늘(-18.3%) 등은 하락함.
- 공업제품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반지(29.1)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, 휘발유(16.3), 경유(17.8), 등유(24.3)도 상승함.
- 공공 서비스의 경우 도시가스(9.7), 시내버스료(5.6), 치과진료비(4.7)가 상승한 반면, 이동전화통화료(-4.0)가 하락함.
- 개인 서비스의 경우 삼겹살(외식: 15.9), 돼지갈비(외식: 14.1), 미용료(6.7)가 상승한 반면,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(-5.1)는 하락함.

(10월 소비자물가 동향, 통계청, 11/1)